

극본을 짜봅시다.

뮤지컬 살인사건

등장인물:

양석빈,김민지,류태운,김다은,박설리,이민규

탐정:양석빈

탐정인데 의뢰수사 1도 안들어옴

용의자1:김다은

직업: 동료 뮤지컬 배우

용의자2:이민규

총괄 디렉터

용의자3:김민지

죽은 뮤지컬 배우 팬

용의자4(살인자):박설리

엑스트라(무명 뮤지컬 배우)

해설:아마 김윤희일거임 찢든 김윤희

죽은사람: 아마도 류태운

유명 뮤지컬 배우

#1뮤지컬

AMBITION(야망)

극장은 뮤지컬 AMBITION을 보러 온 사람들로 가득차있다.
하지만, 10분이 지나도 막은열리지 않았다.
막이 열리자 총괄디렉터가 나왔다.

민규) 죄송합니다. 오늘 뮤지컬이 취소 되었습니다.
보러 오신 많은 분들에게 미안한 마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열린 막 사이로 무언가 보였다.

석빈)음? 저게 뭐지? (하며 안경을 고쳐쓴다.)

태윤).....(죽어있다.)

석빈)..? 아니 잠깐만.. 저건...시체?

민지)시체 일리가 없지 졸려서 주무시는거 아닐까?

석빈)그럴리가 없지 않아..? 누가 연극 하는데 잠을 자?

민지)(오페라 글라스를 가져오며)
잠깐만..야..아니겠지..(떨며)

석빈) 아니야 저건 시체가 맞아! 피도 보인다구!!

민지)설마...진짜..죽었을리가 없잖아!
(무대위의 막이 닫힌다)

#2극장안의 모든것들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극장안의 사람들이 모두 사라졌다.
극장뒤로 누군가 울고 있는 소리가 들린다. 눈치 채보니
탐정옆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서둘러 무대 뒤로
발걸음을 옮겼다.

석빈)다들 어디간거지.. 아 모두 여기 모여있군..
여기 있는 모두들! 지금부터 여러분은 모두
용의자입니다!

그 순간, 무대 뒤 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석빈을
돌아보았다.

민규)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저희가 주연배우를
죽였다는 겁니까?

석빈)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주연배우와 함께 있었고

알리바이도 적당하지 않습니다.

민지)나 먼저 말할게! 나는 주연배우의 엄청난
골수팬이야. 그러니 내가 주연배우를 죽였을 리가 없지.

석빈)그건 충분한 알리바이가 되지 않습니다.

민규)제가 범인이라면 벌써 도망을 갔겠죠.어떻게 제가
처음으로 목격을 할 수 있겠어요?!

다은)어떻게 제가 저의 동료를 죽일 수 있겠어요? 저는
절대 범인이 아니에요!

설리)저는 화장실에서 저의 단 두줄밖에 없는 대사를
외우고 있었어요!!

석빈)여러분의 말을 들어보니, 여러분 모두가 범인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3그들끼리의 싸움

석빈) 모든 살인에는 동기가 있는 법이죠. 여러분은 평소 피해자와 사이가 어땠나요?

설리) 저는 딱히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죽일만큼 그 분을 싫어하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저는 무명의 엑스트라이고, 그 분은 대배우시잖아요. 저는 잘보여야 하는 입장이죠.

다은) 동료 배우니까 일주일에 한 두번 정도 밥을 먹을 정도는 친했죠. 하지만 그 분은 원래 무뚝뚝한 성격이라 아무도 엄청 친한 사람은 없었어요.

민규) 저는 그분에게 감독으로서 많은 존경심과 감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범인이라뇨! 정말 말도 안되는 거죠.

민지) 저는 13년동안 그 분의 엄청난 팬이었어요. 오늘도 공연 축하를 위해 꽃다발을 드리러 왔었죠. 그런데 오늘따라 다은배우님이 너무 까칠해서 대기실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그리고 제가 대기실을 나간 뒤 두 분이

싸우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어요. 맞아요! 저 배우님이
범인임에 틀림없어요!

다은)아니예요! 제가 그 분과 싸운것은 맞지만 사소한
다툼이었다구요! 오히려 저는 저 무명배우가 더
수상해요. 항상 연습할 때마다 그 분을 노려봤어요. 아마
질투에 의한 살인일지도 몰라요.

설리)나 참 어이가 없네요. 제가 눈빛이 음침하다는
얘기를 종종 듣지만 그게 살인의 동기가 될 순 없죠.
오히려 저는 디렉터님이 수상해요. 디렉터님은 그 분을
존경한다고 했지만 연습때마다 항상 그 분의 변덕스러운
성격때문에 힘들어하셨거든요. 아마 그게 살인의
동기일지도 몰라요.

민규)그 분이 변덕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그런 걸로
사람을 죽일 만큼 저는 간이 크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저
팬분이 의심스러워요. 자기 팬심에 답해주지 않는다고
항상 불만을 말하고 다녔거든요.

석빈)자, 모두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들 의견이 달라서
누구를 범인으로 특정하기 어렵군요.

#4.#5 서서히 밝혀지는...

석빈)자 그러면 모두의 소지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짜 범인은 자신의 결정적인 무언가를 숨기려고 할 것
입니다.

민지)(가방안에 들어있던 앨범을 꺼내며) 보시다시피
저는 숨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석빈)(가방을 샅샅이 훑어보며) 네, 정말 별다른 것은
없군요.

민규)저는 들고 다니는 것이 딱히 없습니다. 있어봤자
휴대폰과 초콜릿바 밖에 없습니다. 제 당충전은
소중하니까요!

석빈)(잠시 휴대폰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딱히 숨기는
것은 없어보이는군요. 그 다음으로 설리씨 그리고
다은님이 아직 검사를 안 받으 셧습니다 얼른 내시죠.

다은,설리)(동시에) 내...낼게요!!!

설리)저는 가지고 다니는 건 대본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범인 아니죠?(더듬거리며)

석빈)흐음...?

다은)제가 가지고 다니는건 무설탕 자일리톨 껌과
활명수예요. 제가 원래 속이 좀 안좋은 편이라서
활명수를 가지고 다녀요.

석빈)(설리 주머니에 있는 네모난 수첩을 발견한다.) 그건
뭐죠 설리씨?

설리)(놀라며)이..이건 아무것도 아니예요. 그..그냥
암기한 것들을 한 번씩 써본 거라구요..!

석빈)하지만, 설리씨는 분명 가지고 다니는것은 대본
밖에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 수첩, 한번만 보여
주시겠습니까?

설리) 이..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하며 수첩을 찢어
버린다.)

석빈) 뭐 하시는 겁니까?!(하며 수첩을 맞추기 시작한다.)

1시간 후

석빈)이건! 살...인사..ㅅㅏ건..일..정....표?!

#오후 5시 연극 시작 1시간 전 미리 류태윤을 죽여놓기.#

알리바이: 대사 외우고 있었던 척 하기

만약 수첩이 들킨다면 찢고 도망가기

류태윤 진짜 짜증난다. 내가 할 수 있던 연극을 지가

해놓고 아주 뻔뻔하지? 이번 기회로 류태윤을 죽이고

내가 유명 뮤지컬 배우가 되는거야! 난 할수 있어 ㅋㅋ

설리) 아니 아니라구요! (하며 밖으로 달려나가기
시작한다.)

(그때 다은과,민지,민규가 문 앞을 막아선다.)

석빈)당신은 외울 대사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무려
1시간 동안 그 2줄 짜리 대사를 외웠습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류태윤 배우를 죽인것 뿐이죠.

석빈,다은,민지, 민규)그럼 감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다은)태윤아 이렇게 가다니....(와 나 이거 쓰면서 현타옴)

민지)배우님 ㅠㅕ

민규)(오열한다) 으어어어어엉ㅠ

석빈)누군가를 잃는 것은 참 슬픈 일이군요..